

만해 한용운 연보의 쟁점과 주요 사례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종교학 전공
03250@aks.ac.kr

- I. 머리말
- II. 이미지 유통과 연보
- III. 연보의 쟁점 유형
- IV. 쟁점별 주요 사례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여러 한용운 연보(年譜, chronological listing)를 대조해서 문제의 지점들을 쟁점화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해소하려는 데에 있다. 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한용운의 민족인식을 연구하다가 여러 연보에서 주요 행적이 일치하지 않거나, 내용 오류 부분을 적지 않게 접한 경험 때문이다.

연보는 홈페이지나 작품집을 제외하면, 주로 ‘평전(評傳, critical biography)’에 실려 있다. 대부분의 평전에는 마지막 부분에 개인의 주요 행적이 연(年)·월(月) 순으로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평전에 연보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서술자가 개인의 주요 행적을 선별·강조하여 ‘비평’을 가하는 평전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연보를 통해 비평을 가한 주요 행적들을 시간 순으로 다시 정리해서 자신이 가한 비평의 대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보의 효과는 두 가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일생을 이해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토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일생을 넘어 당대의 사회·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는 연보에 오류가 적다고 판단될 때, 후자는 연보가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작성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연보에서 주의할 부분은 주요 행적의 ‘사실화 경향’이다. 실제로 내용 오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등장하거나 주요 행적이 새로 발견되면 연보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연보는 사실 기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연보가 개인의 주요 행적을 선별·강조한 기록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적인 사실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연보는 서술자가 비평·선별·강조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 방향으로 이미지화하여 사회적 기억으로 유통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보의 ‘사실화 경향’을 고려하면 연보에 포함된 주요 행적만큼은 정확히 기록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근거 없는 작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위성은 개인에 관한 다수의 연보에서 동일 행적에 대한 시공간 기록의 불일치 현상이 드러날 때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한용운의 경우, 이미 여러 연보가 있다. 하지만 연보에 주요 행적의 불일치 현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연보 내용들이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용운 연보를 대상으로 삼은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한용운에 관한 연구는 독립운동과 사상에 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개별 작품에 대해 분석해놓은 것이다.¹⁾

문제는 한용운의 명확하지 않은 연보 기록이 ‘한용운에 관한 이해나 후속 연구에 혼란을 주는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이다. 이 상황을 해소하려면 여러 연보를 대조해서 문제 지점들을 도출하고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한용운의 연보 상황에 있는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용운에 관한 이해와 후속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문 형태의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II. 이미지 유통과 연보

1. 한용운 이미지의 유통

한국 사회에서 한용운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유통되고 있다. 주요 이미지는 불교 개혁론자, 독립운동가, 시인 등인데, 이런 이미지로 각인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용운은 1910년대부터 불교 개혁을 적극 주장하고,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편의 시와 소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한용운의 이미지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 예를 들어, 1978년부터 2012년까지 한용운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55편 가운데, Son Chang Dae의 *(A) Study on Youn Woon Han's liberal thought 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history* (Summit university of Louisiana, 1997), 강미자의 『韓龍雲의 佛敎改革運動과 民族主義運動』(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전보삼의 『華嚴의 觀點으로 본 萬海思想 研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등 3편을 제외하면 모두 작품을 다루고 있다. 한편 독립운동과 관련된 최근 단행본으로는 김광식의 『만해 한용운 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2011)가 있다.

유통되고 있다. 한용운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한용운을 ‘교과서 시인’으로 만들었고, 매년 개최되는 3·1절 행사는 한용운을 독립운동가 또는 민족주의자 이미지로 반복 기억시키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전후부터 유통된 불교 혁신론은 한용운을 불교 개혁론자로 호명하고 있다.²⁾ 이와 관련하여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에서도 1970년대부터 한용운의 생애를 ‘선승(禪僧), 독립지사(獨立志士), 시인(詩人)’의 세 측면에서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³⁾

특히, 한용운의 이미지가 활발히 유통된 시기는 1970년대 이후이다. 그와 관련하여 1966년 1월에 창간호를 낸 『창작과 비평』이 1970년부터 한용운의 작품을 소개하다가, 1973년에 ‘만해문학상’을 제정한 바 있다.⁴⁾ 1971년에는 『나라사랑』 제2집 특집호에서 한용운을 다루었으며, 『조선 불교유신론』이 ‘전국 도서전(국립공보관)에 전시되고, 1973년에는 『한용운 전집』(총 6권)이 간행된 바 있다. 1979년 봄에는 ‘만해 탄신 백주년’ 기념으로 만해사상연구회(회장 김관호)가 발족되어 1979년 9월과 1980년 10월에 각각 『증보 한용운전집』(총 6권)의 초판본과 재판본, 1980년대 초반에 『한용운사상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만해학회(회장 韓啓傳, 서울대 교수)가 창립되어 『만해학보』를 창간한 바 있다.⁵⁾

-
- 2) 「現代 國文學 精選 刊行, 高等의 國文學 教材로」, 《동아일보》, 1946년 9월 12일자, 2면; 「국어 教科書에 共存하는 ‘抗日 親日’」, 《경향신문》, 1981년 12월 11일자, 9면; 「近代 作家의 詩·小說 原典과 틀린 채 出刊」, 《동아일보》, 1980년 11월 17일자, 5면; 「三一運動의 史的 意義, 下」, 《동아일보》, 1946년 3월 15일자, 1면; 「人類平等의 炬火, 民族自存의 大憲章, 獨立宣言書」, 《동아일보》, 1946년 2월 28일자, 2면; 「줄줄이 새겨진 민족의 얼, 韓龍雲님의 獄中記」, 《경향신문》, 1962년 3월 1일자, 4면; 「三一運動當時 33인과 48인의 差異」, 《동아일보》, 1965년 3월 1일자, 6면; 「佛敎革新의 先驅者 萬海 韓龍雲 先生 17週年에 즈음하여」, 《동아일보》, 1961년 5월 9일자, 4면; 「大乘佛敎의 歷史性」, 《경향신문》, 1963년 5월 29일자, 5면; 「佛敎 現代化의 問題點」, 《경향신문》, 1965년 5월 8일자, 5면; 「韓龍雲스님」, 《동아일보》, 1970년 9월 19일자, 5면 등.
- 3) 이 입장은 『증보 한용운전집』 제1권의 앞부분에 실린 ‘이 책을 읽는 분에게’(1973. 6. 30)라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증보 한용운전집』 제1권(신구문화사, 1980).
- 4) 한용운, 「죽음」, 『창작과 비평』 제5권 제3호(1970); 한용운, 「朝鮮獨立理由書」, 『창작과 비평』 제5권 제3호(1970); 안병직, 「萬海 韓龍雲의 獨立思想」, 『창작과 비평』 제5권 제4호(1970); 한용운, 「朝鮮佛敎維新論」, 『창작과 비평』 제8권 제1호(1973); 한기두, 「佛敎維新論과 佛敎革新論」, 『창작과 비평』 제11권 제1호(1976); 안병직, 「朝鮮佛敎維新論의 분석: 萬海탄신 100주년 기념논문」, 『창작과 비평』 제14권 제2호(1979); 「創作과 批評社, 萬海文學賞 제정」, 《동아일보》, 1973년 4월 14일자, 5면.
- 5)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제1권-제6권(재판본)(신구문화사, 1980);

이런 흐름에 대해, 백낙청과 안병직 등 『창작과 비평』 필진은 젊은 우파가 주도한 문학계 상황과 박정희 정권의 탄압 상황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자 1970년 전후부터 문학계에서 한용운을 ‘민족시인’으로 조명하였는데, 이 움직임이 1980년대에 확산된 민족문학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민중불교론, 그리고 불교의 학문적 시민권 확보와 연결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⁶⁾ 이런 지적은 서술 맥락의 차이를 넘어, 한용운의 여러 이미지가 계속 유통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70년대 이후 한용운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그와 관련하여 1980년대 대학생에게 <님의 침묵>은 <서시> 다음으로, 시인 한용운은 윤동주·김지하·박노해 다음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에도 한용운은 윤동주·김소월·서정운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한용운은 1991년 3월의 문화 인물이었고, 대학 본고사 문제의 대상이기도 하였다.⁷⁾

한용운의 여러 이미지는 현재도 계속 유통되고 있다. 특히 1992년경에 복원된 충남의 ‘한용운 생가’, 출가 이후 머물던 백담사·오세암·건봉사, 1933년(55세)부터 약 10년 동안 머물던 심우장(尋牛莊), 1939년 회갑연 장소였던 서울 청량사와 경남 다솔사, 경기도의 ‘한용운 묘소’(망우리), 한용운의 상좌(승려 춘성)가 머물던 성남 봉곡사, 그리고 1990년대에 건립된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신흥사 회주인 무산(霧山, 조오현)이 발원한 백담사 만해기념관, 2000년대에 조성된 ‘만해마을’과 각종 행사 등은

만해사상연구회 편, 『한용운 사상연구』(민족사, 1980)(간행위원회 대표 최범술의 <刊行辭>와 편집위원회의 <重刊辭>); 「支那事變과 불교도」 등 6편 萬海 작품 아닌 것으로 판명, 《경향신문》, 1979년 11월 20일자, 5면; 「만해학보’ 창간호 발간, 《한겨레》, 1992년 7월 14일자, 9면; 「근해 정신 기리기 범국민운동, 《경향신문》, 1996년 7월 27일자, 15면. 『나라사랑』 제2집(의술회, 1971, 7-174쪽)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 화보 특집」, 「고독한 수련 속의 구도자」(석청담), 「만해 한용운 선생 해적의(年譜)」(김종해 작성, 최범술 감수) 외에도 신석정·조종현·정광호가 각각 한용운을 시인, 불교인, 민족적 애국지사로 조명한 글, 염무웅·최범술·한영숙이 각각 한용운의 시, 철학 철학, 아버지의 추억에 대해 서술한 글이 실려 있다. 한편 『한용운사상연구』는 1980년에 1권 1호, 1981년에 2권 1호, 1994년에 3권 1호가 발간되었다.

6) 조명제,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과 일본의 근대지(近代知)」, 『한국사상사학』 제 46집(2014), 315-317쪽.
 7) 「大學生, 누구 作品 많이 읽나, 《동아일보》, 1986년 12월 17일자, 10면; 「윤동주 ‘서시’ 1위 …… 김지하, 박노해 뒤따라, 《한겨레》, 1988년 12월 27일자, 7면; 「가장 좋아하는 시인 尹東柱, 《동아일보》, 1991년 9월 19일자, 13면; 「이달 문화인물’ 책 발간, 《한겨레》, 1992년 8월 13일자, 9면; 「서강大·한양大 ’94본고사 유형, 《경향신문》, 1993년 4월 17일자, 15면.

한용운 이미지의 유통 기제가 되고 있다.⁸⁾ 지금도 한용운에 관한 주요 이미지는 김광식(2011)의 작업이 시사하듯, 독립운동가, 불교개혁가, 작가라고 할 수 있다.⁹⁾

2. 한용운의 평전과 연보

1970년대 이후 한용운 이미지의 활발한 유통은 『나라사랑』 제2집 특집호(1971), 『한용운 전집』(1973)과 『증보 한용운전집』(1979, 1980), 『한용운사상연구』(1980, 1981, 1994) 외에도 평전의 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운에 관한 평전은 1970년대 이후부터 발간되었는데, 발간자는 시인·소설가 고은, 문학평론가 임중빈(1939-2005),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에 재직하던 박결순,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인 불교학자 전보삼,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을 거쳐 백담사 만해마을에 재직하던 불교학자 김광식,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언론인 김삼웅, 동국대 고재석,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의 박재현 등이다.¹⁰⁾ 이들의 전공을 보면 한용운은 주로 문학, 독립운동, 불교 등의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평전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은이나 고재석의 경우를 빼면, 대체로 연보가 실려 있다는 점이다.¹¹⁾ 이런 연보는 연보 작성자의 관점과 선별 작업이 전제되어 있지만, 한용운의 주요 행적과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 평전의 연보는 평전의 내용 흐름뿐 아니라 주요 행적을 본문에서 찾아 확인할 수 있는 색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8) 봉국사(www.bongguksa.or.kr); 『유심』(<http://www.yousim.co.kr/>); 만해기념관(<http://www.manhae.or.kr/>); 만해NGO교육센터(www.ngoedu.or.kr) 등.

9) 김광식, 앞의 책(2011), 13-19쪽.

10) 1957년의 「한용운평전」이라는 글이 있지만(조영암, 「한용운평전」, 『녹원』 제1권, 녹원사, 1957), 단행본 형태는 1970년대 이후이다. 고은, 『한용운평전』(민음사, 1978)(초판 1975); 임중빈, 『만해 한용운』(태극출판사, 1979)(초판 1975); 박결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전보삼 편저, 『푸른 산빛을 깨치고: 만해의 불교사상』(민족사, 1992); 김광식, 『만해 한용운 평전: 첫 키스로 만해를 만난다』(참글세상, 2004); 김삼웅, 『만해 한용운 평전』(시대의창, 2006); 고재석, 『한용운과 그의 시대』(역락, 2010); 김광식, 『우리가 만난 한용운』(참글세상, 2010); 박재현, 『만해 그날들: 한용운 평전』(푸른역사, 2015) 등.

11) 임중빈, 위의 책, 426-433쪽; 전보삼 편저, 위의 책, 284-285쪽; 박결순, 위의 책, 187-192쪽; 김광식, 위의 책(2004), 262-268쪽; 김삼웅, 위의 책, 617-627쪽; 박재현, 위의 책, 354-360쪽 등.

평전 이외에도 한용운 연보는 시인 김종해, 서울대 사회대학 경제학과에 재직한 안병직, 문학평론가인 영남대의 염무웅, 서강대 김열규(1932-2013)와 연세대 신동욱 등의 저서, 그리고 한용운에 관해 각종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만해마을이나 만해기념관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 연보들은 최범술(崔凡述, 1904-1979) 등이 1973년판 『한용운 전집』(총 6권)에 실은 연보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¹³⁾, 한용운을 이해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III. 연보의 쟁점 유형

한용운 연보들을 대조해보면, 연보들이 한용운의 주요 행적과 삶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듯하다. 주요 행적에 관한 이질적 내용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용운이 참여한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삼을 때, 1919년 이전에는 동일 행적의 시점 불일치와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가 빈번한 편이다. 그에 비해 1919년 이후에는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가 빈번한 편이다.

이하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평전류에 실린 연보를 중심으로 대조하되, 비교적 서술 분량이 많은 연보까지 포함시켜 이런 문제 상황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분석 범위에는 임중빈(1979), 최범술(1980), 박걸순(1992), 김광식(2004), 김삼웅(2006), 박재현(2015) 등의 평전류 외에도 안병직(1980)과 염무웅(1981)이 작성한 연보, 그리고 한용운 이미지의 주요 유통 기관이라는 점에서 만해기념관(2015), 만해마을(2015)이 제시한 연보를 포함한다. 다만, 김종해(1971)가 작성한 연보는 감수자가 최범술이고, 전보삼(1992)이 작성한 연보는 만해기념관이 제시한 연보에

12) 김종해, 「만해 한용운 해적이(年譜)」, 『나라사랑』 제2집(외솔회, 1971), 14-22쪽; 안병직, 『한용운』(한길사, 1980), 299-306쪽; 염무웅 편, 『한용운』(한국현대사문학대계 2)(지식산업사, 1981), 226-231쪽; 김열규·신동욱 편, 『한용운연구』(한국문학연구총서 현대문학편 5)(새문사, 1982), V. 37-38쪽; 만해마을(<http://www.manhae.net/>); 만해기념관(<http://www.manhae.or.kr/>).

13) 『증보 한용운전집』(1979년 판, 1980년 판)에는 1973년판으로 추측되는 기존 연보를 수정했다는 내용이 있다.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제6권, 384-391쪽.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¹⁴⁾

1. 1919년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

1919년 이전의 연보 상황에는 주요 행적에 관한 시점 불일치,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동일한 단체명의 다른 표기, 시점 기록의 모호성 문제 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 연보에서 1919년 이전의 행적들을 선택·대조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표1과 표2를 보면 가장 빈번한 문제는 주요 행적의 시점 불일치 문제와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이다. 우선, 시점 불일치 문제는 의병 가담, 이항·출가, 러시아여행, 만주행, ‘불교강구회’ 총재 취임, 조선선종중앙포교당 포교사 취임, 중앙학림 강사 취임 등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이항·출가, 사미계 수지 시점, 러시아여행 시점 등은 그 이후의 주요 행적 시점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시점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독립운동가 이미지와 연관된 ‘의병 가담 여부’는 다소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아직 홍성군 문화관광포털처럼 의병 부분을 적시하여 민족주의자 이미지를 강조한 경우도 있지만¹⁵⁾, 1982년 3·1절을 맞아 만해사상연구소에서 동학운동 가담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후¹⁶⁾, 그리고 임중빈이 1896년(19세) 당시의 의병 가담에 대한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지적한 후¹⁷⁾ 1990년대 이후의 연보에서 제외되고 있다.

14) 김종해, 앞의 논문, 14-22쪽; 전보삼 편지, 앞의 책, 284-285쪽. 다만, 최범술이 감수자임에도 김종해와 최범술(1980) 등이 제시한 연보에는 차이가 있다. 첫째, 김종해가 작성한 연보에는 이항·출가, 러시아여행, 수계, 건봉사 안거, 임제종종무원 관장, 중앙학림 강사 취임, 석방 후 산학원 기거, 법보회/선우공제회/민립대학기성회 발기총회, 『님의 침묵』 탈고와 발간, 1926년 6·10만세사건 검속, 나병구제연구회, 나철 유고집(미완), 신채호 묘비 건립 추진, 정약용 서세백년기념회 개최, 『불교』 속간, 신채호 유고집 간행 추진, 『경허집』 서문·연보, 조선인 학병출정 반대운동 등의 내용이 없다. 둘째, 1892년 초혼(창성 方氏), 1896년 동학운동 참가, 1908년 5-10월 일본 유학, 1910년 8월 만주행, 1913년 통도사 대장경 열람, 1913년 ‘불교학무원’ 창설, 1924년 ‘대한불교청년회’ 총재 취임 등 주요 행적의 시점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15) http://tour.hongseong.go.kr/tour/sub04_02_02.do#personinfo2(2015. 6. 8. 확인).

16) 김열규·신동욱 편, 앞의 책, V. 37쪽. 이 저서의 ‘작가연보’에는 “1894(15세) 동학란이 일어나자 가족 모두가 동학운동에 가담하여 부친과 형이 敗死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폐가 지경에 이름(※ 이 항에 대하여는 1982년 3·1절을 맞아 萬海思想研究所에서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음)”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17) 임중빈, 앞의 책, 426쪽.

표1-1919년 이전의 일치 또는 불일치 부분(1)

	임중빈 (1979)	최범술 (1980)	안병직 (1980)	염무웅 (1981)	박걸순 (1992)	김광식 (2004)	김삼웅 (2006)	박재현 (2015)
출생	1879	1879	1879	1879. 8.	1879	1879	1879	1879
결혼(전정숙)	1892	1892	1892	1892.	1892	1892	1892	1892
의병 가담	1896. ?.	無	1896	1896. ?.	無	無	無	無
이항·출가	1897	1899	1897	1897.	1896.	1897(1차) 1903(2차)	1899	1897
러시아여행	1903. ?.	1899경	1899. ?.	1899	無	1906. ?.	1906. ?.	1904. 봄
이들 출생	1904. 12.	1904. 12.	1904. 12.	1904. 12.	1904. 12.	1904. ?.	1904. 12.	無
수계	1905. 1.	1905. 1.	1905. 1.	1905. 1.	1905. ?.	1905. 1.	1905. ?.	1905. ?.
건봉사 안거	1907. 4.	1907. 4.	1907. 4.	1907. 4.	1907. 4.	1907. ?.	1907. 4.	1907. ?.
명진학교 보조과	無	無	無	無	無	1906. ?.	無	無
일본유학/ 측량강습소 소장	1908. 4-10./12.	1908. 4-10./12.	1908. 4-10./12.	1908. 4-10./12.	1908. 4-10./ 12.	1908. 5-10./12.	1908. 4-10./12.	1908. 4-10./12.
표훈사 강사	1909. 7.	1909. 7.	1909. 7.	1909. 7.	1909. 7.	1909. 7.	1909. 7.	1909. 7.
『음방실문집』	無	無	無	無	無	無	1906. ?.	無
중추원 / 화산강숙 강사 / 통감부 / 『조선불교유신론』 탈고	1910. ?./ 9./?./?.	1910. ?./ 9./?./?.	1910. ?./ 9./?./?.	1910. ?./ 9./?./?.	1910. 3./ 9./9./ 12.	1910. 3./ 9./9./ 12.	1910. 無/ 9./無/9.	1910. 3./ 9./ 9./12.
승려대회 / 임제종중무원 관장 / 민주행	1911. ?./ 3./8.	1910. ?./ 3./ 11. 8.	1911. ?./ 3./8.	1911. ?./ 3./8.	1911. 1./ 3./8.	無(운동)./ 1911. 3./ 10.	1911. ?./ 3./가을	1911. 1./3./8.
통도사 대장경 열람	1912. ?.	1912. ?.	1912. ?.	1912. ?.	1912. ?.	1912. 6.	1912. ?.	1912. ?.
불교중무원 창설 / 불교강구회 총재 / 통도사 강사	1913. ?./ 4./5.	1913. ?./ 4./5.	1913. ?./ 4./5.	1913. ?./ 4./5.	1913. ?./ 4./5.	無 / 1914. 4. (※ 조선불 교 강구회) 1913. 5.	1913. 4./ 無/ 5. (※ 불교 강연회)	1913. ?./ 4./5.
조선불교회 회장	1914. 8.	1914. 8.	1914. 8.	1914. 8.	1914. 8.	1914. 8.	1914. 8.	1914. 8.
불교동맹(회) 조직	無	無	無	無	無	1914. 9.	無	無
조선선종중앙 포교당 포교사	1915. 10.	1915. 10.	1915. 10.	1915. 10.	1915. 10.	1915. 8.	1915. 10.	1915. 10.
『정선강의체근담』 오도송	1917. 4.	1917. 4.	1917. 4.	1917. 4.	1917. 4.	1917. 4.	1917. 4.	1917. 4.
『유심』 발행 / 중앙학림 강사	1917. 12.	1917. 12.	1917. 12.	1917. 12.	無	1917. 12.	1917. 12.	無
『유심』 발행 / 중앙학림 강사	1918. 9-12./?.	1918. 9-12./?.	1918. 9-12./?.	1918. 9-12./?.	1918. 9./ 9.	1918. 9./ 無	1918. 9-12./12.	1918. ?-?./ 9.

※ 표에서 '無'는 연보에 서술 내용이 없음을, '?'는 연보에 월(月)이 표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탤릭체는 여러 연보에서 공통으로 취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준다.

표2-1919년 이전의 일치 또는 불일치 부분(2)

	만해마을(2015)	만해기념관(2015)	※ 전보삼(1992)
이항·출가	1896(※ 가출)	1905. ?, (※ 19, 20세설)	1904. ?.
러시아여행	1903. ?.	1907. 4월경	1907. ?.
이들 출생	1904. ?.	1904. 12.	無
수계	1905. 1. (※ 1898, 사미)	1905. 1.	1905. ?.
건봉사 안거	1907. ?.	1907. 4.	無
일본유학/축량강습소 소장	1908. 5-10. /12.	1908. 4-10./12.	1908. ?./無
표훈사 강사	1909. 7.	1909. 7.	1909. ?.
중추원/화산강숙 강사/통감부/ 『조선불교유신론』 탈고	1910. 3./9./9. /12.	無	無/無/無/1910. ?.
승려대회/임제종중무원 관장/만주행	1911. 無 /3./10.	1911. 1./3./가을	1911. ?./無/無
통도사 대장경 열람	1912. 8.	1913. 12.	1912. ?.
불교중무원 창설/불교강구회 총재/통도사 강사	1914. 無/4./5. (※ 조선불교강구회)	無/1914. 4./1913. 5.	無/ 無/ 無
조선불교회 회장	1912. 8.(좌절)	1914. 8.	無
불교동맹(회) 조직	1912. 8.(좌절)	無	無
조선선종중앙포교당 포교사	1915. 5.	1915. 10.	無
『유심』 발행/중앙학림 강사	1918. 9./無	1918. 9-12./12.	1918. ?./無

※ 만해마을과 만해기념관 연보에서 시점이 동일한 부분 제외: 출생(1879), 전정숙과 결혼(1892), 『정선강의체 근담』 발행 (1917. 4.), 오도송 (1917. 12.)

※ 만해마을과 만해기념관 연보에서 서술이 없는 부분 제외: 의병 가담, 명진학교 보조과 입학 또는 수학, 『음빙실문집』.

※ 표에서 '無'는 연보에 서술 내용이 없음을, '?'는 연보에 월(月)이 표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탤릭체는 여러 연보에서 공통으로 취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는 명진학교 보조과 입학, 『음빙실문집』, 불교동맹회 결성 등이 일부 연보를 제외하고 대체로 빠져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는 연보 작성자의 지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일 행적이 거의 모든 연보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 연보 내용을 답습했다거나 한용운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진학교 보조과 입학과 『음빙실문집』 부분은 한용운의 근대 지식 습득 경로를 해명할 수 있는 통로이지만, 김광식이나 김삼옹의 경우를 빼면 거의 모든 연보에서 제외되고 있다.¹⁸⁾

그 외에 동일 단체의 명칭이 다르게 표기되는 문제도 있다. '불교중무원'과 '불교학무원'¹⁹⁾, '불교강구회 · 불교강연회 · 조선불교강구회' 등이 이

18) 명진학교 보조과 입학과 『음빙실문집』 부분은 김종해와 전보삼이 작성한 연보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김종해, 앞의 논문, 17쪽; 전보삼 편저, 앞의 책, 284쪽.

런 사례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대체로 연보에서 ‘불교강구회’로 표기되고 있지만, 김삼웅은 ‘불교강연회’로, 김광식과 만해마을은 ‘조선불교강구회’로 표기하고 있다.²⁰⁾ 또한 「중추원 헌의서(獻議書)」와 「통감부 건백서(建白書)」 부분은 시점이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다. 불교종무원 창설²¹⁾과 조선불교회 회장 취임 등처럼 연보에 있지만, 평전 본문에서 근거 내용이 나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1919년 이후: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

1919년 이후의 연보 상황에는 1919년 이전의 경우처럼 주요 행적에 관한 시점 불일치,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동일한 단체명의 다른 표기, 시점 기록의 모호성 문제 등이 보인다. 그렇지만 1919년 이전의 경우에 비해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1919년 이후의 연보 상황을 정리하면 표3·표4와 같다. 표3과 표4를 보면, 1919년 이전의 연보 상황에 있는 문제가 거의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3·1운동 이후의 석방 시점이나 만당의 영수 추대 시점 등에서는 시점 불일치 문제, 선학원 기거나 민립대학기성준비회 참여 등이 제외된 부분에서는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 조선불교청년회가 대한불교청년회로 표기된 부분에서는 동일 단체명의 다른 표기 문제, 창씨개명 반대운동과 조선인 학병출정 반대운동의 구체적 시점이 없는 부분에서는 시점 기록의 모호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919년 이전의 연보 상황에 비해 시점 불일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감소한 이유는 1919년 이후부터 한용운이 주요한 사회 인사가 되어 그의 행적에 대하여 언론 노출 정도가 많아졌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19) 김종해, 위의 논문, 17쪽. 김종해는 불교종무원(1913)을 ‘불교학무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20) 김광식은 「1910年代 佛敎界의 曹洞宗 盟約과 臨濟宗 運動」(『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2집, 1995, 123쪽)에서 ‘조선불교강구회’로 표현한 바 있다.

21) 불교종무원과 명칭이 같지만 다른 단체도 있다. 1905년 해인사의 이회광이 조선불교개발 기관으로 주도한 ‘조선불교연구회’는 1907년에 내부(內部) 승인을 받아 ‘종무원’으로 개칭한 이후, ‘불교종무원, 원종종무원’으로 불렸다. 「佛敎宗務院 發展」, 《황성신문》, 1910년 3월 2일자, 3면; 「宗務院의 總會」, 《매일신보》, 1912년 6월 13일자, 3면.

표3-1919년 이후의 포함 또는 미포함 부분(1)

	임중빈 (1979)	최범술 (1980)	안병직 (1980)	염무웅 (1981)	박결순 (1992)	김광식 (2004)	김삼웅 (2006)	박재현 (2015)
석방/선학원 거거	1922. 3./ 無	1922. 3./ 無	1922. 3./ 無	1922. 3./ 無	1921. 12./ 無	1921. 12./ 석방 직후	1921 7월/ 無	1921. 12./ 12.
법보회/ 선우공제회/ 민립대학기성준비회	1922. 3./ 無/無	1922. 3./ 無/無	1922. 3./ 無/無	1922. 3./ 無/無	1922. 3./ 無/11.	1922. 3./ 3./11.	1922. 3./ 無/無	1922. 3./ ?/11.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기성회 발기총회	1923. 2./ 無	1923. 2./ 4.(연설)	1923. 2./ 4.(연설)	1923. 2./ 4.(연설)	1923. 2./ 3.	無/1923. 3.(집행위원)	1923. 2./ 無	1923. 2./ 3.
조선불교청년회 총재	1924. ?.	1924. ?.	1924. ?.	1924. ?.	1924. 1. (회장)	1924. 1.	1924. ?.	1924. 1. (회장)
『십현담주해』/ 『님의 침묵』 탈고	1925. 6.(오)/ 8.(백담)	1925. 6.(오)/ 8.(백담)	1925. 6.(오)/ 8.(백담)	1925. 6.(오)/無	1925. ?./ 8.(백담)	1925. 6./ 8.(오세)	1925. 6./ 8.(오세)	1925. 6. (오)/8. (백담)
『님의 침묵』 발간/ 6·10만세 사건 검속	1926. 5.(滙東)/ 6.	1926. 5.(滙東)/ 6.	1926. 5.(滙東)/ 無	1926. 5.(滙東)/ 無	1926. 5.(안동)/ 6.	1926. 5.(회동)/ 6.	1926. 5.(회동)/ 無	1926. 5./ 6.
신간회 발기/ 중앙집행위원/ 경성지회장/ 조선불교총동맹 개칭 광주학생사건 관련 민중대회	1927. 1./ 5./7./? 1929. 12.	1927. 1./ 5./5./? 1929. 11.	1927. 1./ 5./5./5. 1929. 11.	1927. 1./ 5./5./? 1929. 11.	1927. 1./ 2./6./無 1929. 12.	1927. 1./ 2./6./無 1929. 12.	1927. 1./ 5./5./5. 1929. 11.	1927. 1./ 2./6./無 1929. 12.
민당의 영수 추대	1931. ?.	1931. ?.	1931. ?.	1931. ?.	1929. 12.	1931. 5.	1931. 5.	1930. 5(경).
『불교』지 사장/ 나병구제연구회	1931. 6./ 9.	1931. 6./ 9.	1931. 6./ 9.	1931. 6./ 9.	1931. 6./ 9.	1931. 6./ 無	1931. 6./ 9.	1931. 6./ 9.
재현(유숙원) / 심우정 간담 / 『불교』 휴간	1933. ?./ ?/無	1933. ?./ ?/無	1933. ?./ ?/無	1933. ?./ ?/無	1933. ?./ ?/無	1933. ?./ ?/7.	1933. ?./ ?/無	1933. ?./ ?/7.
딸(영숙) 출생	1934. 9. 1935. 4.	1934. 9. 1935. 4.	1934. 9. 1935. 4 (전후)	1934. 9. 1935. ?.	1934. 9. 無	1934. 9. 無	1934. 9. 1935. 4.	1934. 9. 無
나철 유고집(미완)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신채호 묘비 / 정약용 서세백년기념회 개최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1936. ?./ 7.
『불교』 속간/ 김동삼 5일장	1937. 3./ 3.	1937. 3./ 3.	1937. 3./ 3.	1937. 3./ 3.	1937. 3./ 3.	1937. ?. (연재)/3.	1937. 3./ 無	1937. 3./ 3.
민당 발각	1938. ?.	1938. ?.	1938. ?.	1938. ?.	1938년 말	無	1938. 11.	1938 연말
청량사 / 다솔사 회갑연	1939. 음 7./7.	1939. 음 7./7.	1939. 음 7./7.	1939. 음 7./7.	1939. 음 7./7.	1939. 음 7./?	1939. 음 7./無	1939. 음 7./7.
창씨개명 반대운동	1940. ?.	1940. ?.	1940. ?.	1940. ?.	1940. ?.	無	1940. ?.	1940. ?.
신채호 유고집 간행 / 『경허집』 서문·연보	1942. ?./ 無	1942. ?./ 無	1942. ?./ 無	1942. ?./ 無	1942. ?./ 無	1942. ?./ 無	1942. ?./ 無	1942. ?./ ?
조선인 학병출정 반대운동	1943. ?.	1943. ?.	1943. ?.	1943. ?.	1943. ?.	無	1943. ?.	1943. ?.

표4- 1919년 이후의 포함 또는 미포함 부분(2)

	만해마을(2015)	만해기념관(2015)	※ 전보삼(1992)
석방/선택원 기거	1921. 12./12.	1921. 12./無	1921. ?./無
법보회/선우공제회/민립대학기성준비회	1922. 3./3./11.	1922. 3./無/無	無/無/1923. ? (운동 주도)
물산장려운동/민립대학기성회 발기총회	1923. 無/3.	1923. 2./4.(지원 강연)	1923. ?.(적극 지원)/?.
조선불교청년회 총재	1924. 1.(회장)	1924. 11. (※대한불교청년회)	1924. ?. (※조선불교청년회)
신간회 발기/중앙집행위원/경성지회장/ 조선불교총동맹 개칭	1927. 1./2. 6./無	1927. 1./無/6-12./12.	1927. ?./?./?./無
광주학생사건 관련 민중대회	1929. 12.	1929. 11.	1929. ?.
민당의 영수 추대	1930. 5.	1930. 5.	無
『불교』지 사장/나병구제연구회	1931. 6./無	1931. 6./9.	1931. ?./無
재현(유숙원)/심우장 건립/『불교』 휴간	1933. ?./?./?.	1933. ?./無/7.	無/1933. ?./無
니철 유고집(미완)	無	1935. 4.	無
신채호 묘비/정약용 서세백년기념회	1936. ?./7.	1936. ?./7.	無/無
『불교』 속간/김동삼 5일장	1937. 3./?.	1937. 3./3.	1937. ?./無
민당 발각	無	1938. 11.	無
청량사/다술사 회갑연	1939. ?.	1939. 8./8.	無/無
창씨개명 반대운동	無	無	1940. ?.
조선인 학병출정 반대운동	無	1943. ?.	1943. ?.

※ 만해마을과 만해기념관 연보에서 시점이 동일한 부분 제외: 1925년 6월(오세암)과 8월 『십현담주해』/『님의 침묵』 탈고, 1926년 5월(회동서관)과 6월 『님의 침묵』 발간/6·10만세사건 검속, 1930년 5월 민당의 영수 추대, 1934년 9월 딸(영숙) 출생, 1942년 신채호 유고집 간행 추진 등

※ 만해마을과 만해기념관 연보에서 서술이 없는 부분 제외: 창씨개명 반대운동, 『경허집』 서문·연보 작성

실제로 시점 불일치가 큰 부분은 3·1운동 이후의 석방 시점, 민당의 영수 추대 시점 정도이다. 이 가운데 석방 시점은 점차 1922년 3월부터 1921년 12월로 정리되고 있다. 다만, 민당의 영수 추대 시점은 1931년설(임중빈·안병직·염무웅·김광식), 1929년설(박결순), 1930년설(만해기념관·만해마을·박재현) 등 다양하다. 민당의 조직에 직접 참여한 최범술이 1931년에 “金法麟·金尙昊·李龍祚·崔凡述 등이 조직한 青年法侶秘密結社 卍黨의 영수로 추대되다”, 1938년에 “卍黨 당원들이 日警에 피검되자”라고 연보에 기록한 바 있지만²²⁾, 여전히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1919년 이전의 연보 상황에 비해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22)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제1권, 388쪽, 390쪽. 또한 1940년에 “創氏改名에 대하여 朴洸·李東廈 등과 반대운동을 벌이다”라고, 1943년에 “朝鮮人學兵의 出征을 반대하다”라고 적은 부분도 최범술의 회고에 해당한다(같은 책, 390쪽, 391쪽).

문제는 빈번해지고 있다. 작품의 경우를 예로 들면, 최범술은 연보에 상당히 많은 작품을 포함시켰고, 박결순은 『불교교육 한문독본』(발표: 1912)부터 시작해서 ‘만해 저작 일람’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²³⁾ 그에 비해, 임중빈은 두 건의 ‘건백서’(1910), 『조선불교유신론』(1913), 『불교대전』(1914), 『정선강의 체근담』(1917), 『유심』(1918)의 몇 작품, 《동아일보》 게재 글(「朝鮮及朝鮮人の 苦悶」, 1923), 『죽음』(탈고: 1924), 『십현담 주해』·『님의 침묵』(1926) 등만 선별하여 연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몇 작품만 선별하여 포함시킨 상황은 안병직, 김삼웅, 만해마을, 박재현 등이 작성한 연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해마을의 연보에는 1923년 조선물산장려운동 지원, 1931년 나병구제연구회 조직, 1935년 나철 유고집 발행 추진, 1938년 만당의 발각, 1940년 창씨개명 반대운동, 1943년 조선인 학병출정 반대운동 등이 제외되고 있다. 그에 비해 박결순이 정리한 연보에는 1921년 석방 후 선학원에 기거한 부분, 1922년 선우공제회 발기 부분, 1933년 『불교』 휴간 부분, 1942년 『경허집』 서문·연보 작성 부분 등이 제외되고 있다. 또한 김광식이 정리한 연보에는 나철 유고집 간행 추진, 창씨개명 반대운동, 조선인 학병출정 반대운동 등이 제외되고 있다.

이런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에 대해 ‘연보 작성자의 지향성 차이를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는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가 연보마다 차이가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보가 개인에 관한 전적인 사실 기록이라기 보다 주요 행적을 선별·기록해서 개인에게 특정 이미지를 부여하는 장치라는 시사점이 있다.

연보 작성자의 지향성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수용한다면, 독자에게는 연보 작성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일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이 관점을 적용하면 만해마을의 연보에는 사회 활동보다 불교 활동, 박결순의 연보에는 ‘나철 유고집 간행 추진’이 빠져 있지만, 불교 활동보다 사회(독립) 활동을 강조한다는 지향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연보 작성자의 지향성 차이는 불교 개혁론자, 조선총독부의

23) 위의 책, 제6권, 384-391쪽(崔凡述 編, 〈增補 韓龍雲 年譜〉); 박결순, 앞의 책, 193-202쪽.

정책에 반대한 민족주의자, 저술가 등의 이미지 유통에서도 강조점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만으로는 특정한 행적들이 여러 연보 전체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주요 행적의 표현이 연보마다 반복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특정한 행적이 여러 연보에서 제외되는 현상은 연보 작성자의 지향성 차이라기보다는 특히 기존 연보 내용을 답습하는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맥락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런 현상이 한용운의 이미지를 기존의 세 가지 이미지로 고정화하는 경향, 동시에 새로운 이미지의 탐색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IV. 쟁점별 주요 사례

앞부분에서 한용운의 연보 상황에 있는 여러 문제를 주요 행적에 관한 시점 불일치,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동일한 단체명의 다른 표기, 시점 기록의 모호성 문제 등으로 유형화해서 제시하였다. 이런 유형화는 연보 상황의 쟁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는 연보 상황에서 빈번한 시점 불일치 문제, 그리고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시점 불일치 문제

1) 이향·출가 시점: 1896년(18세)~1903년(25세)

첫째, 이향(離鄉) 시점의 문제이다. 한용운은 홍주(洪州, 洪城)에서 태어나 청년기를 보내다가 상경했고, 상경 도중에 출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향 시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임중빈·안병직·염무웅·김광식·박재현은 1897년설(19세설), 박결순·만해마을은 1896년설(18세설)을 지지하고 있다.²⁴⁾ 최범술은 이향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24) 다만, 김광식은 홍성을 떠난 시점에 대해 18세설, 19세설, 25세설 등이 있음을 언급하

1899년에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의 백담사 등지를 전전하다”라고 적었으며²⁵⁾, 김상응도 1899년설(21세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 외에 불교학자 정병조는 1896년설(18세설)을 주장하였고, 만해기념관에서는 19세설과 25세설이 있다는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²⁶⁾

둘째, 출가 시점의 문제이다. 출가 시점은 출가 개념을 ‘불목하니행재, 사미계, 비구계’ 가운데 어느 것에 맞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 평전에서는 득도(得度, 비구계 수지) 시점을 1905년(27세)으로 보면서, 불목하니 시점에 18세설(1896), 19세설(1897), 25세설(1903), 26세설(1904)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용운이 고향을 떠나 상경하다가 출가했다는 식으로 이향과 출가를 연결시켜 ‘불목하니’를 출가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에 비해 만해마을에서는 한용운이 19세(1897)에 ‘월정사 강원’에 있다가 20세(1898)에 ‘백담사’로 옮겨 ‘사미계’를 수계하고 봉완(奉玩)이라는 법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²⁷⁾ 출가 개념을 ‘사미계 수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출가 장소의 문제이다. 연구자들은 한용운의 비구계 수지 사찰을 백담사로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 머문 장소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결순은 1896년(18세)에 고향을 떠나 ‘보은 속리사(俗離寺)’로 갔다가 다시 ‘백담사’로 갔다고 본다.²⁸⁾ 또한 만해마을에서는 18세(1896)에 고향을 떠나 ‘보은 속리사’에 입산했고, 19세(1897)에 ‘월정사 강원’에서 수학하다가 20세(1898)에 ‘백담사’로 옮겼고, 27세(1905) 1월에 백담사로 재입산한 것으로 보고 있어²⁹⁾, ‘월정사 강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에 비해 만해기념관에서는 고향을 떠나 ‘오대산 월정사, 설악산 백담사 등지를 전전’한 것으로 보면서 ‘속리사’ 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다. 정병조는 1896년(18세)에 고향을 떠나 ‘오세암’에 입산하여 절 일을 거들다가 출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⁰⁾ 그 외에 안병직·박재현처럼 19세

면서 당사자의 증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9세설(1897년)을 따른다. 그리고 3년 후인 1900년경에 다시 홍성에 돌아왔다가 25세(1903)에 부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홍성을 떠났고, 이후에 귀향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광식, 앞의 책(2004), 23-28쪽.

25)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제1권, 384쪽.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용운’ 항목(집필자: 정병조); 만해기념관, ‘한용운 연보’ (<http://www.manhae.or.kr/>).

27) 만해마을, ‘만해연보’(<http://www.manhae.net/>).

28) 박결순, 앞의 책, 25-26쪽. 속리사가 법주사(法住寺)의 이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속리사’와 ‘법주사’는 별개 사찰일 가능성』, 《충북일보》, 2014년 3월 20일자).

29) 만해마을, ‘만해연보’(<http://www.manhae.net/>).

(1897)에 고향을 떠나 ‘백담사 등지를 전전했다거나, 1897년(19세)에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에 칩거하다가 ‘마지막에 좌초된 곳이 백담사라고 서술하여³¹⁾ 장소를 모호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다.

이향 시점, 출가 시점에 대한 이견은 무엇보다 한용운의 회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출가와 관련된 회고 자료를 보면, 1930년 5월 자료에는 18세설(1896)과 갑진년 전해인 25세설(1903), 1930년 1월 자료에는 19세설, 1932년 1월 자료에는 27세설, 1933년 9월 자료에는 18세설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³²⁾ 그 외에 1922년 《신한민보》 기사에는 한용운이 27세에 백담사에 들어간 것으로, 1932년 10월 『동광』 기사에는 “17세에 결혼한 후 독신이었다가 27세에 입산(入山)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1936년 3월 『삼천리』 자료에는 “불도(佛道)를 닦는 길로 들어선 시기가 20세 시절이고, [...] 30세 전후부터 불당(佛堂)에서 생활하였다”고 서술되어 있어, 역시 차이를 보인다.³³⁾

이향과 출가 시점 외에 출가 장소에 대한 회고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1930년 5월 자료에는 “報恩俗離寺로 갔다가 [...] 江原道 五臺山の 百漂寺까지 가서 그곳 동양중, 즉 托鉢僧이 되어 佛道를 닦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있다.³⁴⁾ 그에 비해 1933년 9월 자료에는 “江原道 五臺山の 百潭寺에 일흠 늙흔 도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산골길을 여러 날 패이어 그곳으로 갔었다”라는 내용이 있다.³⁵⁾ 이처럼 회고에서도 먼저 ‘보은 속리사’로 갔는지, ‘백담사’로 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의 여러 자료를 종합할 때,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이향 시점을 18세(1896)부터 25세(1903) 사이라고 넓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27세설(1905)은 고향을 떠나 바로 비구계를

30) 만해기념관, ‘한용운 연보’(http://www.manhae.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용운’ 항목(집필: 정병조).

31) 안병직, 앞의 책, 299-306쪽; 박재현, 앞의 책, 38쪽, 356쪽.

32) 한용운, 「(이때까지 아모에게도 아니한 이약이, 秘中秘話) 남 모르는 나의 아들, 『별건곤』 제25호(1930. 1), 81-82쪽; 한용운, 「나는 왜 僧이 되었나?, 『삼천리』 제6호(1930. 5), 44-46쪽; 한용운, 「나는 왜 이리케 뵈나, 그는 왜 중이 되었나, 『별건곤』 제47호(1932. 1), 19-20쪽; 한용운, 「처음 서울 오든 때 - 西伯利亞 거쳐 서울로, 『삼천리』 제5-9호(1933. 9), 92-93쪽.

33) 기자, 「민족대표 48인의 약력, 《신한민보》, 1922년 3월 9일자, 4면; 「佛敎社 韓龍雲, 『동광』 제38호(1932. 10. 1), 15쪽; 기자, 「當代處士 찾아(2), 尋牛莊에 參禪하는 韓龍雲氏를 차저, 『삼천리』 제8권 제6호(1936) 62-63쪽.

34) 한용운, 앞의 글(1930. 5), 44-46쪽.

35) 한용운, 앞의 글(1933. 9), 92-93쪽.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한용운이 비구계 수지 이전에 사집과·사미과를 이수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이항 후 처음 머문 사찰이 보은 속리사인지, 오대산 월정사인지, 백담사인지, 오세암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비구계 수지 시점은 1905년 1월로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이다.

2) 러시아여행의 출발·귀국 시점: 1904년(26세) 3월경

우선, 러시아여행 시점 문제이다. 한용운은 청나라의 서계여(徐繼畬, 1795-1873)가 복건성(福建省) 순무(巡撫, 지방장관)를 역임할 때 세계 지리서로 간행한 『영환지략(瀛環地略)』(1850, 10권 6책)의 충격 때문에 러시아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한용운이 『영환지략』을 읽은 시점, 러시아여행의 출발·귀국 시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최범술은 러시아여행 시점을 백담사 등지를 전전하던 1899년(21세) 전후라고 보고 있다.³⁶⁾ 그에 비해 정병조는 1905년 백담사 재입산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海參威) 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여행했다는 ‘1905년(27세) 이전설’, 박결순은 러시아여행 시점을 ‘1905년 초봄’으로 보는 1905년설(27세)을 주장하고 있다.³⁷⁾

한편, 안병직은 1899년설(21세), 김삼웅은 1906년설(28세), 박재현은 1904년설(26세)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재현은 1904년 봄에 귀국하여 백담사로 돌아와 아들의 출생 소식을 들었고, 1905년 정월에 계명[봉완(奉玩)], 범명[용운(龍雲)], 범호[만해(萬海)]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직은 1899년에 백담사 등지를 전전하다가 그 전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지만 박해를 받고 곧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삼웅은 1906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다가 일진회 첩자로 오인을 받아 박해를 받고 곧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그 외에 염무웅은 1899년설(21세), 김광식은 1906년설(28세)³⁹⁾, 그리고

36)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제1권, 384쪽.

3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용운’ 항목(집필: 정병조); 박결순, 앞의 책, 37쪽. 다만, 만주 행 시점이 1911년이므로 『민백』의 항목에서 ‘시베리아와 만주’라는 표현은 ‘시베리아와 일본’으로 바뀌어야 한다.

38) 박재현, 앞의 책, 38-39쪽, 356쪽; 안병직, 앞의 책, 299쪽; 김삼웅, 앞의 책, 49-51쪽, 618쪽.

39) 염무웅, 앞의 책, 226쪽; 김광식, 앞의 책(2004), 263쪽; 김광식, 앞의 책(2011), 200쪽.

만해마을과 만해기념관은 각각 1903년설(25세), 1907년설(29세)을 제시하고 있다. 만해마을에서는 한용운이 20세(1898)에 백담사로 옮겨 '사미계'를 수지(법명: 奉玩)한 후, 25세(1903)에 세계일주(시베리아)에 도전했다가 귀국하여 석왕사에서 참선했고, 26세(1904)에 귀향했다가 27세(1905) 1월에 백담사로 재입산하여 '비구계'를 수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⁰⁾ 그에 비해 만해기념관에서는 한용운이 1907년(29세) 4월에 건봉사에서 수선안거(최초의 선(禪) 수업)를 할 때를 전후해서 세계여행을 계획하고 백담사에서 하산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으나 일진회 첩자로 오해를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⁴¹⁾

한용운이 『영환지략』을 읽은 시점, 러시아를 여행한 시점에 대해 연구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보이는 이유는 한용운의 회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한용운이 『영환지략』과 러시아여행 모두를 언급한 자료는 약 2건, 러시아여행만 언급한 자료는 약 1건이다.

1930년 5월 회고 자료를 보면, 한용운은 백담사에서 동량중탁발승(托鉢僧)이 되어 불도(佛道)를 닦기 시작해서 수년 동안 승방(僧房)에 있었을 때 『영환지략』을 통해 넓은 천지(天地)의 존재를 알고 시베리아를 가기 위해 원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지만, 엄모(嚴某)씨가 밀정(密偵)으로 오인하는 등 위험 상황이 이어지자 귀국한다. 이 내용은 1933년 9월 회고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베리아에 도착해서 '몇 해의 방랑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여 안변 석왕사(安邊 釋王寺)에서 참선했다는 부분을 보면, 시베리아에 머문 기간은 다르게 회고되고 있다.⁴²⁾

그에 비해 1935년 3월 회고 자료를 보면, 한용운은 '입산한 지 몇 해 안 된 음력 2월 초순'에 백담사에서 경성으로 갔고, 세계여행(러시아·中歐·미국)을 위해 원산에서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로 갔지만, 일진회 원으로 오인을 받고, 항구에서 조선 청년들에게 위협을 당한 후에 지체 없이 귀국을 결심한다. 그렇지만 원산까지 올 선비(船費)가 없던 차에 50리 바다를 건너 육로로 오는 길을 알게 되어 목선을 타고 50리 바다를 건너 촌촌전진(村村前進)하다가 '여러 날 만'에 연추(煙秋)를 경유하여

40) 만해마을, '만해연보'(http://www.manhae.net/).

41) 만해기념관, '한용운 연보'(http://www.manhae.or.kr/).

42) 한용운, 앞의 글(1930. 5), 44-46쪽; 한용운, 앞의 글(1933. 9), 92-93쪽.

두만강을 건너 귀국한다.⁴³⁾

이처럼 회고 자료에서도 『영환지략』을 읽은 시점, 러시아여행의 출발과 귀국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다. 비교적 명확한 부분은 백담사의 탁발승이 되어 수년 동안 승방에 있다가 『영환지략』을 읽었다는 점, 그리고 ‘입산한 지 몇 해 안 된 음력 2월 초순’에 백담사에서 경성으로 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머문 기간이 1933년 9월 회고 자료에 ‘몇 해’, 1935년 3월 회고 자료에 ‘여러 날’ 등 다르게 회고되고 있어 귀국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자료를 동시에 참조하면 각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27세(1905)에 중이 되려고 집을 떠났을 때 아내가 잉태 중이었다는 1932년 1월의 회고, 출가할 때 회임(懷妊) 중이던 아내가 생남(生男)했다는 말을 전편(傳便)으로 들었다는 1930년의 회고, 만아들(전보국의 출생 시점이 1904년 12월 21일이라는 점⁴⁴⁾ 등을 보면 한용운은 1904년 봄에 귀향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1905년 1월의 비구계 수지 이후에는 김광식이 지적했듯이 귀향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⁴⁶⁾ 이와 동시에 한용운이 백담사에 동냥중으로 몇 해를 머물다가 세계여행을 위해 ‘음력 2월 초순’에 경성으로 갔다고 회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여행의 출발과 귀국 시점은 비구계 수지 이전, 구체적으로 1904년 봄(3월 이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환지략』을 읽은 시점도 러시아여행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1904년 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3) 만주행⁴⁷⁾의 내용과 귀국 시점: 1911년(33세) 8-10월경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한용운이 ‘1911년(33세) 가을 또는 8월’에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인사들을 만났고, 압록강 너머 지역인 서간도의 통화현

43) 한용운, 「북대륙의 하룻밤」, 《조선일보》, 1935년 3월 8-13일자.

44) 한용운, 앞의 글(1932. 1), 19-20쪽; 한용운, 앞의 글(1930. 1), 82쪽; 안병직, 앞의 책, 299쪽; 만해기념관(<http://www.manhae.or.kr/>).

45) 러시아여행 시점을 1899년 전후로 본 최범술도 1904년 봄에 귀향해서 5·6월경에 백담사에 들어가 불목하니 노릇을 했다고 본다.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제1권, 384쪽.

46) 김광식, 앞의 책(2004), 28쪽.

47) 필자는 당초 여행으로 표기했으나 시찰로 표기해야 한다는 심사자의 의견도 있었다. 만주행은 그 목적이 일이나 유람이라면 ‘여행’, 실제 처지(實地)를 살피는 것이라면 ‘시찰(視察)’로 표기할 수 있지만, 만주행의 동기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만주행’이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소아가] 굴라재에서 총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주로 만주행 시점을 “일한이 병합이 되든 그 이듬해이니 아마 일천구백십일년 가을”이라고 서술한 1927년의 회고 자료이다.⁴⁸⁾

그러나 귀국 시점은 1차 자료에서도 분명하지 않다. 1927년 회고 자료에는 ‘청인 촌에서 대강 치료하고 다시 그 아래 조선인 촌에서 달포(about a month)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1931년 8월 『별건곤』 자료에는 한용운이 총격 이후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고 한다.⁴⁹⁾ 전자에 따르면 총격 이후 치료 기간이 약 1개월 정도이므로 귀국 시점은 길게 잡아도 1911년 10월 이전, 후자에 따르면 총격 이후 치료 기간만 2-3개월이므로 귀국 시점은 1911년 10월 이후나 1912년 정도이다. 그렇지만 한용운이 1911년 10월경에 김학산·장기림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에 임제종의 인가 신청 준비를 했다는 점⁵⁰⁾을 고려하면 한용운의 귀국 시점은 1911년(33세) 10월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용운의 만주행 기간이 길지 않아 ‘1911년(33세) 가을 또는 8월’에 만주로 가서 총격 이후 1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1911년(33세) 10월 이전에 귀국했다면 만주행을 독립운동과 연결시키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만주행을 독립운동과 연결시켜 서술하고 있다. 그 근거 자료로는 1927년 회고 자료뿐 아니라 “일한합병(日韓合併)이 되든 그 이듬해에 그는 여러 가지의 불평을 품고 만주 방면으로 가서 모방면으로 활동”했다는 1931년 8월 자료, “20여 년 전 일한합병(日韓合併) 뒤에 만흔 불평을 풀고 조선을 떠나 남북만주(南北滿洲)로 다년간 도라다닐 때에”라는 내용이 담긴 1931년 12월 자료 등이 활용되고 있다.⁵¹⁾

48) 한용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악이-滿洲山間에서 青年의 拳銃에 마저서, 『별건곤』 제8호(1927. 8), 30-32쪽. 이 자료에 따르면, 만주에서는 조선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역 생활을 묻기도 하고 고국 사정을 전했으며, 동지와 협력하여 동포의 보호 방침도 상의한다. 그러다가 어떤 산촌(山村)에서 자고 올 때 배행한 청년들에게 ‘굴라재’에서 총격을 받고, 청인의 촌에서 대강 치료하고, 다시 그 아래 조선인의 촌에서 달포 동안 치료를 한다. 총격을 받은 이유는 ‘조선서 온 이상한 정탐이라는 혐의’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통화현 소아가는 굴라재가 속한 지명이다.

49) 기자, 「名士 逢變錄-韓龍雲氏의 拳銃洗禮, 『별건곤』 제42호(1931. 8), 13쪽.

50) 「朝鮮佛教臨濟宗 擴張, 《매일신보》, 1911년 10월 3일자, 2면.

51) 한용운, 앞의 글(1927. 8), 30-32쪽; 기자, 앞의 글(1931. 8), 13쪽; 기자, 「(萬華鏡) 韓龍雲氏는 왜-체머리를 흔드나, 『별건곤』 제46호(1931. 12), 16-17쪽.

구체적으로 최범술과 안병직은 '망국의 울분' 때문에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군들에게 민족독립사상을 복돋아주고, 망명 중이던 박은식·이시영·윤세복 등 독립지사들과 만나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다'라고⁵²⁾, 박걸순은 "만주로 건너가 박은식·이시영·윤세복 등과 독립운동방향 논의"라고 기록하고 있다.⁵³⁾ 그에 비해 김삼웅은 연보에 "만주를 주유하면서 독립지도자들을 만나고 귀국"했다고 기록하고, 평전 본문에 '이회영·김동삼(1878-1937)·박은식·이시영·윤세복 등'을 만났고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하여 각처에 산재한 독립군 훈련장을 찾아 돌아다니며 애국 청년들을 격려했다'고 서술하고 있다.⁵⁴⁾ 박재현은 연보에 "만주로 건너가다가 피격됨"이라고 기록하면서 평전 본문에 우당 이회영의 집을 방문했고 총격 이후 치료과정에 이회영의 도움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⁵⁵⁾

물론 서간도의 통화현, 회인현(현 환인현), 유하현 등은 조선 지식인들이 한일병합 직후에 이주한 지역이므로 '동지와 협력했다는 한용운의 회고처럼 이들과 접촉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회영(1867-1932)·이시영(1869-1953) 형제와 이동녕, 이상룡·김동삼·유인식 등은 한일병합 직후에 통화현과 유하현에 이주하여 1911년 4월부터 경학사(耕學社, 1912년 이후 부민단)라는 자치기관을 운영한 바 있다.⁵⁶⁾ 김동삼과 함께 대동청년단(설립: 1909. 10)에서 활동하던 윤세복(1881-1960)은 시교사(施教師)에 임명되어 1911년 2월(음)에 환인현으로 이주했고, 박은식(1859-1925)도 1911년 5월(음)에 윤세복이 있던 동창학교(대종교 시교당)로 가서 저술 활동을 한 바 있다.⁵⁷⁾

그렇지만 한용운이 만주에 머문 시기가 길지 않다는 점, 게다가 1937년 3월에 김동삼의 장례를 주도한 부분을 제외하면 귀국 이후에 만주행 당시에 만난 인물들과 교류한 기록이 거의 발굴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주행을 독립운동과 직접 연계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52) 만해 한용운선생 진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제1권, 385쪽; 안병직, 앞의 책, 300쪽.

53) 박걸순, 앞의 책, 37쪽, 188쪽.

54) 김삼웅, 앞의 책, 57-61쪽, 618쪽.

55) 박재현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영한지략』으로 세계여행의 꿈을 꾸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박재현, 앞의 책, 147쪽.), 『음빙실문집』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56) 한상복, 「獨立運動家 家門의 社會的 背景: 友堂 李會榮 一家의 事例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1989), 618-619쪽; 이동언, 「一松 金東三 研究-國內와 亡命 初期의 活動을 中心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1993), 135-137쪽.

57) 서경일, 「단에 윤세복과 독립운동」, 『경기사학』 제7집(경기사학회, 2003), 155-157쪽.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고승의 학설과 행적을 모았다는 한용운의 1922년 9월 언급을 볼 때⁵⁸⁾, 그리고 만주행 시점이 ‘한일병합’ 직후가 아니라 1911년 1월 이후 박한영·진진웅·김종래 등과 함께 참여한 임제종운동의 과정에 있었던 <사찰령>과 <사찰령 시행규칙> 시행 시점(1911. 9)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영향도 만주행의 동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만주행의 내용을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

1) 명진학교 보조과 입학 여부와 시점: 1907년(29세) 3-12월

여러 연보에는 김광식의 경우를 제외하면⁵⁹⁾, 한용운의 명진학교(明進學校) 입학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1908년(30세) 10월에 일본에서 귀국한 후, 건봉사에서 『화엄경』과 『반야경』을 수학하고, 12월에 명진측량강습소 소장에 취임했다는 내용만 있다. 그에 대해 2012년에는 한용운의 회고 자료나 ‘사립조선불교 중앙학림’ 강사 임용(1918. 12)을 위한 친필 이력서에 명진학교의 입학 경력이 없다고 지적된 바도 있다.⁶⁰⁾

그에 비해 남도영·김순석·김광식 등은 동국대학교 교사에 근거하여, 한용운이 권상로·강대련·안진호·이종욱·강용선·최용식·김선은·임해운·최환허 등과 함께 1908년 3월의 제1회 명진학교 졸업생(11명)이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진학교 ‘보조과’에서 일과과정을 단기에 마치고 1908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일본 유학을 한 후, 귀국하여 졸업생 가운데 최초로 모교에 임용, 즉 명진학교의 부설기관인 명진측량강습소 소장에 임명되었다고 한다.⁶¹⁾

58) 「佛敎社會化를 爲하야-한용운씨 등이 범보회를 조직, 팔만대장경을 국문으로 번역」, 『동아일보』, 1922년 9월 25일자, 3면.

59) 김광식, 앞의 책(2004), 45-46쪽, 263쪽. 다만, 명진학교 보조과 과정을 1906년 5월에 마쳤다는 서술(김광식, 앞의 책, 2011, 94쪽, 169쪽)과 1908년 초에 마쳤다는 서술이 병존하고 있다(같은 책, 2011, 223쪽).

60) 한상길, 「이동인과 만해: 근대불교의 개화와 유신」, 『만해학보』 제12집(만해학회, 2012), 38-69쪽.

61) 동국대학교 칠십년사 간행위원회 편, 『東大七十年史: 1906-1976』(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621-622쪽; 남도영, 「舊韓末의 明進學校: 最初의 近代式 佛敎學校」, 『역사학보』 제90집(1981), 119쪽; 김순석, 「통감부 시기 불교계의 명진학교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1집(2003), 139-140쪽, 149쪽; 김광식, 「명진학교의 건학정

만약 한용운이 명진학교 제1회 졸업생이라면 명진학교의 개교 시점(1906)에서 명진학교 제1회 졸업생 배출 시점, 즉 명진학교를 원종종무원에서 운영하던 1908년 3월 이전에 ‘사미과 수료’라는 보조과 입학 자격을 충족했어야 한다. 이 자격은 한용운이 1905년(27세) 1월의 비구계 수지 이후 4월에 이학암(李鶴庵)에게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을 수료했다는 점, 1908년(30세)에 유점사(楡岾寺)의 서월화(徐月華)에게 『화엄경』을 수학하다가 동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건봉사의 이학암에게 『반야경』과 『화엄경』을 수료했다는 점에 근거하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내용은 사교과 이수, 뒤의 내용은 대교과 이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⁶²⁾ 한용운은 1905년 비구니 수계 이전에 사미과·사집과를 이수하고, 1905년(27세) 4월에 사교과를 이수한 셈이다.

또한 한용운이 보조과에 입학했다면, 그 시점은 명진학교의 제1회 졸업생 배출 시점(1908. 3)과 보조과 수업연한(3개월-1년)을 고려할 때 1907년 3월부터 12월 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용운이 러시아에서 귀국한 후, 안변 석왕사(安邊 釋王寺)⁶³⁾의 암자에서 참선을 하다가 동양 문명이 도쿄(東京)에서 집산된다고 판단하고 도쿄로 가기 위해 ‘1908년(30세) 봄에 상경’했다고 회고하고 있어⁶⁴⁾, 보조과 입학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보조과 입학 이후에 도쿄에 가기 위해 상경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조과 입학 여부는 한용운이 근대 지식을 습득한 경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한용운이 보조과에 입학했다면 명진학교의 본과 교과목에 있었던 ‘종교학 及 종교사’, ‘철학 及 철학사’, ‘법제대요(法制大要)’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한용운의 보조과 입학 여부 문제에 대해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과 근대 민족불교관의 형성, 『불교학보』 제45집(2006), 348쪽.

62) 본과에 비해, 보조과 입학 자격은 대교과가 아니라 사교과 수료자, 수업 연한은 2년이 아니라 1년에서 3개월 사이, 정원은 20명, 교과목은 측량학과 일어 두 가지였다(남도영, 위의 논문, 105-114쪽, 118쪽, 124쪽). 그리고 구한말 당시, 승려 교육과정은 ‘사미과(1년)·사집과(2년)·사교과(4년)·대교과(3년)’의 강원 학제(10-11년) 가운데 『수능엄경』·『대승기신론』·『금강반야경』·『원각경』은 사교과, 『화엄경』은 대교과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이다(같은 논문, 89-90쪽).

63) 기자, 『次代の指導者 總觀』, 『삼천리』 제4권 제3호(1932. 3), 22-31쪽. 安邊 釋王寺는 江原의 일부와 咸南의 定平 以南 사원을 총괄하던 본산이다.

64) 한용운, 앞의 글(1933. 9), 92-93쪽; 한용운, 앞의 글(1930. 5), 44-45쪽.

2) 『음빙실문집』을 접한 시점: 1905년(27세) 6월-1910년(32세)

대부분의 연보에는 『영환지략』과 같이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평전의 본문에 『음빙실문집』에 관하여 서술된 경우는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한용운이 『음빙실문집』을 접한 시점에는 이견이 보인다. 예를 들어, 한용운의 러시아여행 시점을 1905년 봄으로 보는 박길순은 ‘러시아여행 이후’ 백담사에서 불경 연구에 전력할 때를 전후하여 『음빙실문집』을 접하고 근대 서구의 자유·평등사상을 수용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에 비해 러시아여행 시점 이전을 1906년(28세)으로 보는 김삼웅은 ‘러시아여행 이전에 승려 연곡이 『영환지략』과 함께 『음빙실문집』을 건네준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⁶⁵⁾

한용운이 『음빙실문집』을 접한 시점에 대해서는 한용운이 1935년 10월에 “『음빙실문집』에서 얻은 기억의 한 토막”이라는 양계초의 미주여행담(1903. 1-10)을 소개하면서 ‘근 30년의 회상’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양계초의 미주여행담이 1905년 6월 이후 재간된 『음빙실문집』에 실렸으므로 한용운이 1905년판 『음빙실문집』을 접했다는 지적도 있다.⁶⁶⁾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용운이 『음빙실문집』을 접한 시점은 러시아여행 이후인 1905년 6월경부터 1910년 사이라고 볼 수 있다. 1910년을 한계선으로 설정한 이유는 『조선불교유신론』이 탈고된 시점(1910. 12. 8)과 함께, 1910년에 『음빙실문집』과 『음빙실자유서(飲氷室自由書, 1908)』 등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의 금지·압수 목록(51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⁶⁷⁾

연보에 『음빙실문집』 부분이 빠진 것은 한용운에게 미친 『음빙실문집』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강미자, 고재석, 이평전, 이혜숙 등 여러 연구자는 한용운과 서구 사상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에서 양계초(梁啓超, 1873-1929)의 30세 이전 글을 모아 2권으로 간행된, 그리고 정치, 교육, 종교 등 다양한 학설과 함께 적자생존이나 우생열패의

65) 박길순, 앞의 책, 34-35쪽; 김삼웅, 앞의 책, 47-48쪽, 618쪽.

66) 만해, 「最後의 五分間」, 『朝光』 創刊號(朝鮮日報社出版部, 1935. 10). 96-97쪽; 김춘남, 「梁啓超를 통한 萬海의 西歐思想受容 -조선 佛敎維新論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5), 17-22쪽.

67)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시 제72호>, 『朝鮮總督府官報』 제69호(1910. 11. 1). 조선총독부는 안녕 질서의 방해를 이유로 「출판법」(1909, 법률 제6호) 제12조·제16조에 의거하여, 51종의 발매와 반포를 금지·압수하였다

원리 등이 담긴 『음빙실문집』(1902)의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다.⁶⁸⁾ 특히, 『조선불교유신론』은 『음빙실문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은 1984년 김춘남의 석사학위논문 이후 신진숙, 김진무, 조명제 등의 연구로 밝혀지고 있다.⁶⁹⁾ 이런 연구들은 『음빙실문집』이 연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불교동맹회의 조직과 시점: 1914년 8월경

조선불교회·불교동맹회는 원종과 임제종의 대립 이후, 〈사찰령〉 시행과 30본산 조직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불교회와 달리, 불교동맹회에 관한 기록은 김광식과 만해마을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보에서 빠져 있다. 다만, 만해마을에서는 ‘1912(34세) 8월에 불교대중화를 위해 조선불교회와 불교동맹을 결성했으나 좌절했다고 서술하여 명확한 시점 오류 문제를 보이고 있다.

조선불교회와 불교동맹회의 등장 맥락을 파악하려면 당시의 불교계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용운은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 9월부터 장단군 화장사의 ‘화산강숙(華山講塾)’의 강사로 초빙되었지만, 이회광이 조동종의 홍진설삼(弘津說三)과 체결한 ‘1910년 10월 6일자 내약(內約)’⁷⁰⁾에 대해 광주 증심사(證心寺, 澄心寺) 대회(11. 6) 등 반대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박한영·진진웅·김종래(金鍾來) 등과 함께 임제종운동을 전개한다. 이어 〈사찰령〉 시행(1911. 9) 직후인 1911년 10월경에는 김학산·장기림 등과 함께 임제종의 인가를 위해 임제종무원(범어사)과 삼본산(통도사·해인사·송광사)을 정하고 사법과 승규를 제정(齊整)하여 조선총독부에 인가 신청 준비를 한다.⁷¹⁾

68) 이선이, 「만해 韓龍雲 文學에 나타난 脫植民主義의 인식」, 『어문연구』 제31권 제2호 (2003); 강미자, 「한용운의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에 대한 일고찰」, 『역사와 경계』 제58집(2006); 김광식, 「한용운의 불교 근대화 기획과 승려결혼 자유론」, 『대각사상』 제11집(2008); 고재석, 『韓國近代文學의 佛敎知性的 背景研究: 韓龍雲과 梁建植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0); 이평진, 「한용운 소설에 투영된 근대 사상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52집(2009); 이해숙, 「한용운 소설의 인물과 근대사상 형상화 양상」, 『돈암어문학』 제26집(2013) 등.

69) 김춘남, 앞의 논문; 신진숙, 「동아시아 근대담론 속에 나타난 민족과 윤리주체의 의미 고찰: 萬海사상과 梁啟超의 《新民說》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3집(2009); 김진무, 「근대 합리주의의 인간관의 유입과 佛性論의 재조명: 梁啟超와 韓龍雲의 佛性論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선학』 제29집(2011); 조명제, 앞의 논문(2014).

70) 「沙門新塾」, 《매일신보》, 1910년 11월 27일자, 2면; 「運動의 締盟」, 《매일신보》, 1911년 4월 2일자, 2면.

이회광 중심의 원종종무원이 '30본사 주지회'를 준비하던 1912년에는 범어사에서 경성에 건축하던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일명 寺洞 포교당)'의 주무를 맡아 동년 5월에 개교하는 등 임제종의 확장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원종종무원이 '조선선교양종 각본산주지회의원'으로 전환한 직후인 1912년 6월 21일에 경성부가 원종 관계자(이회광·강대련)와 임제종 관계자(한용운)를 소환하여 모두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임제종은 해체된다. 그 후 홍월초와 박한영 등 원종에 반대했던 인물들은 이회광 일파와 화해한다. 또한 한용운이 있던 '사동 포교당'도 1913년 중순에 '조선선종 중앙포교당'으로 개칭하고 각大本산과 조선불교월보사에 통지서를 보낸다.⁷²⁾

이후 1914년 8월경에 '조선불교선종포교당의 포교사'로 있던 한용운은 '경합을 통한 불교 확장'을 취지로 불교신자인 문탁(文鐸), 김호응(金浩應) 등과 함께 '조선불교회'를 발기한다. 그렇지만 조선불교회를 30본산 주지회의에 포함시키려는 본산 주지들의 입장과 한용운의 반대 입장이 충돌하자 북부 경찰서 고등계는 1914년 8월에 조선불교회를 조직하지 못하게 한다.⁷³⁾ 그러자 한용운은 조선불교회 명칭을 '불교동맹회'로 바꾸어 일종의 '거리 포교'를 지향했지만, 북부경찰서 고등계에서는 한용운을 다시 불러 불교동맹회를 조직하지 못하게 한다.⁷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용운이 조선불교회와 불교동맹회를 조직하다가 좌절된 시점은 1914년 8월경이다. 그렇다면 만해마을의 시점 오류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교동맹회는 조선불교회의 후신이자 '불교

71) 김광식, 앞의 논문(1995), 110-125쪽; 「朝鮮佛教臨濟宗 擴張」, 《매일신보》, 1911년 10월 3일자, 2면.

72) 「雜報 中東 引繼」, 『조선불교월보』 제3호(1911. 2), 64-65쪽; 「中央布教堂의 興學」, 《매일신보》, 1912년 4월 6일자, 3면; 「布教堂의 盛況, 중앙포교당의 盛況」, 《매일신보》, 1912년 5월 28일자, 3면; 「佛教消息」 「梵魚寺의 教堂 復活」, 『불교』 제24호(1926), 54쪽; 「잡보 門牌撤去」, 『조선불교월보』 제6호(1912. 5), 78쪽; 「잡보 會議院 會議 顛末」, 『조선불교월보』 제6호(1912. 5), 57-77쪽; 「宗務院의 總會」, 《매일신보》, 1912년 6월 13일자, 3면; 「合併이 也自好, 합병하는 것이 도치」, 《매일신보》, 1912년 6월 19일자, 3면; 「잡보 月初師 披露會」, 『조선불교월보』 제7호(1912. 6), 64쪽; 「잡보 朴漢永師 歡心」, 『조선불교월보』 제7호(1912. 6), 65쪽; 「雜貨鋪 教堂 擴張」, 『조선불교월보』 제17호(1913. 6), 72쪽.

73) 「佛教會의 歸寂, 불교회 조직은 싸움만 하다가 필경은 금지를」, 《매일신보》, 1914년 8월 15일자, 3면. 기사를 보면 '조선불교회' 조직 시점은 1914년이다. 다만, 「조선불교회 취지서」에는 발기인과 시점 등이 없다(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조선불교회 취지서」, 앞의 책, 제2권, 170쪽).

74) 「佛教會의 再燃」, 《매일신보》, 1914년 8월 22일자, 3면.

대중화라는 면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보에 조선불교회를 포함하려면 불교동맹회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조선불교회 명칭이 1914년뿐 아니라 1920년에도 등장하므로⁷⁵⁾ 연보에서도 혼동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1919년 이후의 다양한 사회 활동

여러 연보에는 한용운의 사회적 활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1922년 이후의 각종 대중 및 불교 강연, 1926년 ‘6·10만세운동’ 관련 발언⁷⁶⁾ 등을 제외하면, 주로 포함되는 부분은 1922년 11월경 이후 민립대학 건립 운동, 1922년 9월 법보회 활동, 1924년 1월 조선불교청년회 총재 취임, 1927년 ‘신간회’ 발기 및 경성지회 설립 참여 활동,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일명 광주사건)’ 진상 조사 및 관련 사건 연루, 1931년 9월 나병구제연구회 조직, 1934년 7월 다산 서거 백년 기념회 발기인 참여 활동 등이다.

문제는 기존 연보에서 빠진 행적이 그 이후의 연보에서도 계속 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23년 9월 ‘동경지방 이재(罹災) 조선인 구제회’ 조직, 1931년 3월 ‘경성실비진료소’ 창립 발기인 참여, 1931년 8월 중국수재동정회 실행위원 참여와 후원, 1931년 10월 재만피난동포 구체를 위한 협의회(만주조난동포문제협의회) 참여, 1933년 7월 ‘영남수재구제협의회’ 실행위원 참여, 1933년 10월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참여, 1936년 5월 ‘을지문덕 묘산수보(墓山修保)회’ 발기회의 발기인 참여 등은 대부분의 연보에서 빠져 있다.⁷⁷⁾ 또한 한용운이 1918년

75) 불교회, 『朝鮮佛敎會 宣傳書』, 『朝鮮佛敎叢報』(三十本山聯合事務所, 1920. 5), 12-13쪽.

76) 「六月 事件'과 '六十萬歲' 四十七名만 收監」, 《동아일보》, 1926년 6월 16일자, 2면; 「學務當局의 酷令과 學生의 處罰問題, 二」, 《동아일보》, 1926년 7월 9일자, 2면.

77) 「慘禍에 죽어가는 同胞를 爲하야」, 《동아일보》, 1923년 9월 10일자, 3면; 「社會 各方面 網羅, 實費 療院員 發起, 診察은 無料로, 藥價도 三分一」, 《동아일보》, 1931년 3월 29일자, 2면; 「中國의 災民을 救하자! 水害同情會 組織」, 《동아일보》, 1931년 9월 2일자, 2면; 「中國水害同情 聲明書 發表」, 《동아일보》, 1931년 9월 4일자, 2면; 「中國水害 同情金」, 《동아일보》, 1931년 10월 11일자, 7면; 「避亂同胞 問題로 各團體 有志會合」, 《동아일보》, 1931년 10월 28일자, 2면; 「九 委員 增選, 部署를 組織」, 《동아일보》, 1931년 10월 30일자, 2면; 「徐慰問使 = 歡迎會 盛況」, 《동아일보》, 1931년 12월 9일자, 2면; 「嶺南 水災 救濟 協議會 經過」, 《동아일보》, 1933년 7월 7일자, 2면; 「한글統一 委員 慰勞會 開催」, 《동아일보》, 1933년 11월 6일자, 2면; 「우리 乙支將軍 墓山修保키로 赤心 團合」, 《동아일보》, 1936년 5월 24일자, 2면.

8월의 『유심』 창간호와 1932년의 『불교』 중간호에 타고르의 글을 실었음에도 대부분의 연보에는 타고르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⁷⁸⁾

V. 맺음말

지금까지 한용운의 주요 행적을 명확히 하여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여러 연보를 대조해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평전류의 출간과 연보의 대두 상황을 한용운 이미지의 유통 맥락과 연결시켜 서술했으며, 다음으로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연보 상황에서 빈번한 문제들을 유형화해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사례를 쟁점화 방식으로 제시하고 여러 자료를 토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1919년 이전의 연보 상황에는 주요 행적에 관한 시점 불일치,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동일한 단체명의 다른 표기, 시점 기록의 모호성 문제 등이 있지만, 시점 불일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1919년 이후의 연보 상황에서는 그 이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였다.

시점 불일치 문제의 주요 사례로는 이항·출가 시점, 러시아여행의 출발·귀국 시점, 만주행의 내용과 귀국 시점 등을 검토하였다.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의 주요 사례로는 명진학교 보조과 입학 여부, 『음빙실문집』을 접한 경험, 불교동맹회의 조직, 1919년 이후의 다양한 사회 활동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이 가운데 만주행의 내용을 독립운동과 연계시키려면 여행 기간에 대한 고려, 여행 이후 한용운의 인적 교류 등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명진학교 보조과 입학 여부와 『음빙실문집』에 관한 부분이 한용운의 근대 지식 습득과 연관되어 중요하다는 점, 불교 대중화라는 맥락에서 조선불교회와 함께 불교동맹회도 연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 1919년 이후의 사회 활동이 관습적으로

78) 1918년 8월의 『유심』 창간호에 「生の 實現」(인도철학자 타구르)이 실렸고, 『불교』 중간호에 「心靈의 自覺」(타고르, 『불교』 제108호, 1932, 16-18쪽)에 실린 것을 보면, 한용운은 타고르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5- 주요 사례의 시기 정리

쟁점	이항·출가 (18-25세)	러시아여행 (26세)	『음방실문집』 독서 (27-32세)	명진학교 보조과 (29세)	민주행 (33세)	불교동맹회 조직 (36세)
시기	1896-1903	1904. 3월경	1905. 6-1910	1907. 3-12.	1911. 8-10월경	1914. 8월경
비고	(출가를 행자 단계에 적용)	『영환지략』 독서도 1904년 이전		(보조과에 입학했다는 전제 아래)		조선불교회 해체 직후

누락되어 한용운의 삶 전체를 이해하거나 후속 연구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 작업으로 미루었다. 예를 들어, 명진학교 측량강습소의 설립 배경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비할 측량기술자를 단기에 양성하여 사찰소유지와 민족재산을 보호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라는 관점⁷⁹⁾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측량강습소는 1907년 3월 이후 공업전습소의 측량과목 설치, 1908년 12월 탁지부의 『토지측량술』 편찬, 1909년 4월경 근위보병대가 군사 목적에서 실시한 측량술 교수, 다른 학교의 측량강습소 설치 등의 흐름⁸⁰⁾ 속에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유지의 소유권 등기를 위한 토지조사사업 시기(1910. 9-1918. 12)를 고려할 때, ‘토지 측량 지식의 확대 흐름’도 배경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에도 한용운의 여러 이미지는 작품, 3·1운동을 포함한 기념행사, 불교계 사업 등을 통해 계속 유통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연보도 지속적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연보가 제공하는 ‘주요 행적의 사실화 경향’을 고려하면, 연보 작성자의 지향성 차이를 강조하거나 기존 연보 내용을 답습하기 이전에 먼저 근거 자료를 토대로 기존 연보를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 없이 연구자들이 주요 행적을 취사선택한다면, 한용운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이해 뿐 아니라 후속 연구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글이 한용운 연보에

79) 남도영, 앞의 논문, 126쪽.

80) <공업전습소 규칙>(공포 1907. 3. 1); 度支部 臨時財産整理局 測量課 편찬, 『土地測量術: 小三角及水準測量之部』(1908. 12); 『兵卒測量術』, 《황성신문》, 1909년 4월 9일자, 2면; 『測量講習所』,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일자, 1면.

관한 탐색과 새로운 연보 작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불교닷컴》, 《신한민보》, 《조선일보》, 《한겨레》, 《황성신문》.

「佛敎消息」 梵魚寺의 敎堂 復活」. 『불교』 제24호, 1926.

「잡보」 門牌撤去」. 『조선불교월보』 제6호, 1912. 5.

「잡보」 朴漢永師 歡心」. 『조선불교월보』 제7호, 1912. 6.

「잡보」 月初師 披露會」. 『조선불교월보』 제7호, 1912. 6.

「雜報」 中東 引繼」. 제3호, 1911. 2.

「잡보」 會議院 會議 顛末」. 『조선불교월보』 제6호, 1912. 5.

「雜貨鋪」 敎堂 擴張」. 『조선불교월보』 제17호, 1913. 6.

「佛敎社 韓龍雲」. 『동광』 제38호, 1932. 10. 1.

「조선불교회 취지서」. 『증보 한용운전집』 제2권, 신구문화사, 1980.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시 제72호〉. 『朝鮮總督府官報』 제69호, 1910. 11. 19.

기자, 「名士 逢變錄-韓龍雲氏의 拳銃洗禮」. 『별건곤』 제42호, 1931. 8.

_____, 「(萬華鏡) 韓龍雲氏는 왜-체머리를 흔드나」. 『별건곤』 제46호, 1931. 12.

_____, 「次代의 指導者 總觀」.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 3.

_____, 「當代處士 찾어(2), 尋牛莊에 參禪하는 韓龍雲氏를 차저」. 『삼천리』 제8권 제6호, 1936.

만해, 「最後의 五分間」. 『朝光』 創刊號, 朝鮮日報社出版部, 1935. 10.

불교회, 「朝鮮佛敎會 宣傳書」. 『朝鮮佛敎叢報』, 三十本山聯合事務所, 1920. 5.

한용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滿洲山間에서 青年의 拳銃에 마저서」.

『별건곤』 제8호, 1927. 8.

_____, 「(이때까지 아모에게도 아니한 이야기, 秘中秘話) 남모르는 나의 아들」.

『별건곤』 제25호, 1930. 1.

_____, 「나는 왜 僧이 되었나?」. 『삼천리』 제6호, 1930. 5.

_____, 「나는 왜 이렇게 됐나, 그는 왜 중이 되었나」. 『별건곤』 제47호, 1932. 1.

_____, 「처음 서울 오든 때-西伯利亞 거쳐 서울로」. 『삼천리』 제5권 제9호, 1933. 9.

강미자, 「한용운의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에 대한 일고찰」. 『역사와 경계』 제58집, 2006.

_____, 『韓龍雲의 佛敎改革運動과 民族主義運動』.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고은, 『한용운평전』. 민음사, 1978.
- 고재석, 『韓國近代文學의 佛敎知性的 背景研究: 韓龍雲과 梁建植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_____, 『한용운과 그의 시대』. 역락, 2010.
- 김광식, 「1910年代 佛敎界의 曹洞宗 盟約과 臨濟宗 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2집, 1995.
- _____, 『만해 한용운 평전: 첫 키스로 만해를 만난다』. 장승, 2004.
- _____, 「명진학교의 건학정신과 근대 민족불교관의 형성」. 『불교학보』 제45집, 2006.
- _____, 「한용운의 불교 근대화 기획과 승려결혼 자유론」. 『대각사상』 제11집, 2008.
- _____,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0.
- _____, 『만해 한용운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 김삼웅, 『만해 한용운 평전』. 시대의창, 2006.
- 김순석, 「통감부 시기 불교계의 명진학교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1집, 2003.
- 김열규·신동욱 편, 『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
- 김종해, 「만해 한용운 해적이(年譜)」. 『나라사랑』 제2집, 외솔회, 1971.
- 김진무, 「근대 합리주의 인간관의 유입과 佛性論의 재조명: 梁啟超와 韓龍雲의 佛性論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선학』 제29집, 2011.
- 김춘남, 「梁啟超를 통한 萬海의 西歐思想受容 -조선 佛敎維新論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남도영, 「舊韓末의 明進學校: 最初의 近代式 佛敎學校」. 『역사학보』 제90집, 1981.
- 만해사상연구회 편, 『한용운 사상연구』. 민족사, 1980.
- 만해 한용운선생 전집간행위원회, 『증보 한용운전집』 제1권-제6권. 신구문화사, 1980.
- 박걸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 박재현, 『만해 그날들: 한용운 평전』. 푸른역사, 2015.
- 서굉일, 「단애 윤세복과 독립운동」. 『경기사학』 제7집, 경기사학회, 2003.
- 신진숙, 「동아시아 근대담론 속에 나타난 민족과 윤리주체의 의미 고찰: 萬海사상과 梁啟超의 《新民設》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3집, 2009.
- 안병직, 「朝鮮佛敎維新論의 분석: 萬海단신 100주년 기념논문」. 『창작과 비평』 제14권 제2호, 1979.
- _____, 『한용운』. 한길사, 1980.
- 염무웅 편, 『한용운』(한국현대사문학대계 2). 지식산업사, 1981.
- 이동언, 「一松 金東三 研究 - 國內와 亡命 初期의 活動을 中心으로」. 『한국독립운동

- 사연구』 제7집, 1993.
- 이선이, 「만해 韓龍雲 文學에 나타난 脫植民主義의 인식」. 『어문연구』 제31권 제2호, 2003.
- 이평전, 「한용운 소설에 투영된 근대 사상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52집, 2009.
- 이혜숙, 「한용운 소설의 인물과 근대사상 형상화 양상」. 『돈암어문학』 제26집, 2013.
- 임중빈, 『만해 한용운』. 태극출판사, 1979(초판 1975).
- 전보삼, 『華嚴의 觀點으로 본 萬海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전보삼 편저,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만해의 불교사상』. 민족사, 1992.
- 조명제,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과 일본의 근대지(近代知)」. 『한국사상사학』 제46집, 2014.
- 조영암, 「한용운평전」. 『녹원』 제1권, 녹원사, 1957.
- 한기두, 「佛敎雜新論과 佛敎革新論」. 『창작과 비평』 제11권 제1호, 1976.
- 한상길, 「이동인과 만해: 근대불교의 개화와 유신」. 『만해학보』 제12집, 만해학회, 2012.
- 한상복, 「獨立運動家 家門의 社會的 背景: 友堂 李會榮 一家의 事例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1989.

만해기념관 www.manhae.or.kr/

만해마을 www.manhae.net/

만해NGO교육센터 www.ngoedu.or.kr

봉국사 www.bongguksa.or.kr

『유심』 <http://www.yousim.co.kr/>

국 문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여러 한용운 연보(年譜)를 대조하여 여러 쟁점을 도출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해소하는 데에 있다. 연구 배경은 한용운의 여러 연보에 주요 행적이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가 적지 않아 한용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의 해소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는 II장에서 평전의 출간과 연보의 대두 상황을 한용운 이미지의 유통 맥락과 연결시켜 서술하였다. III장에서는 1919년 3·1운동 전후의 연보 상황에서 빈번한 문제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IV장에서 주요 사례를 쟁점으로 제시하고 여러 자료를 토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특히, III장에서는 여러 연보를 대조하면서 한용운의 연보 상황에 주요 행적에 관한 시점 불일치,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동일한 단체명의 다른 표기, 시점 기록의 모호성 문제 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919년 이전의 연보 상황에는 시점 불일치 문제가 가장 빈번하고, 1919년 이후의 연보 상황에는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가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V장에서는 시점 불일치 문제의 주요 사례로 이항·출가 시점, 러시아 여행의 출발·귀국 시점, 만주행의 내용과 귀국 시점 등을 검토하고, 각 시점을 1896년(18세)-1903년(25세), 1904년(26세) 3월경, 1911년(33세) 8-10월경으로 정리하였다. 만주행의 내용을 독립운동과 연결시키는 경향에 대해서는 여행 기간에 대한 고려, 여행 이후 한용운의 인적 교류 등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요 행적의 포함 여부 문제의 주요 사례로는 명진학교 보조과 입학 여부, 『음빙실문집』을 접한 경험, 불교동맹회의 조직, 1919년 이후의 다양한 사회 활동 부분을 검토하고, 각 시점을 1907년(29세) 3-12월, 1905년(27세) 6월-1910년(32세), 1914년 8월경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명진학교 보조과 입학 여부와 『음빙실문집』에 관한 부분이 한용운의 근대 지식 습득과 연관되어 중요하다는 점, 불교 대중화라는 맥락에서 조선불교회와 함께 불교동맹회도 연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 1919년 이후의 사회 활동이 관습적으로 누락되면서 한용운의 삶 전체를 이해하거나 후속 연구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 연구가 기존의 한용운 연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연보를 작성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용운에 관한 이해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5. 6. 22.

심사일 2015. 7. 14.

게재 확정일 2015. 9. 3.

주제어(keyword) 한국 불교(Korean Buddhism), 한용운(Han Yong-Un), 이미지(불교개혁론자, 민족주의자, 시인)(Images as a Reformer of Buddhism, a Nationalist, and National Poet), 평전(Critical Biography), 연보의 쟁점(Issues in Chronological Listing)

Abstracts

Major Issues in Han Yong-Un's Chronological Listings

Ko, Byung-chul

We can find various discrepancies and errors in chronological listings of Han Yong-Un. These don't help to understand world view of Han Yong-Un.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rive issues including chronological listings of Han Yong-Un, and to solve some of them.

For this, in chapter II, I examined the relevance of images, critical biographies, and chronological listings of Han Yong-Un. In chapter III, I, examining the contents of chronological listings of Han Yong-Un, presented their several issues such as differences in the time of major incidents, the exclusion of major incidents, errors in organizations' name, and the vague description of major incidents' time.

Then, in chapter IV, I reviewed the cases of several issues in chronological listings of Han Yong-Un, including time being priest and visiting Russia and Manchuria. I also explained the contents being involved in several organizations. And, through these, I argued that the resolution of the issues could be helpful in understanding and studying Han Yong-Un.

I expect to make this article a small contribution to elucidate several issues in the chronological listing of Han Yong-Un, and to extend our understanding of his life and major careers.